

“데뷔 20년 만에 스타덤…얼떨떨해요”

“결혼해줘” 전세계 여성팬 DM 물려
첫 농도 짙은 베드신 촬영 조마조마
쌈디·배현정이 내 부산사투리 '사부'

반전이자, 예상치 못한 ‘대박’이다. 배우 김지훈(41)이 데뷔 20년 만에 그야말로 “터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종이의 집)에서 섹시한 매력을 뽐내면서 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 3위에 오른 드라마는 비록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그에게만은 만국공통으로 “핫 가이(Hot Guy)”라는 수식어와 함께 극찬이 쏟아진다.

그 자신도 “당황스러울 정도의 인기”라며 어리둥절했다. 최근 화상으로 만난 김지훈은 “지난달 24일 드라마가 공개된 직후부터 다양한 언어로 ‘결혼해 달라’는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엄청나게 받았다”면서 “이런 뜨거운 관심은 처음이라 얼떨떨하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 “베드 신은 숙명으로”

그는 극중 남북공동화폐를 흡취하려는 강도단 일원 ‘덴버’ 역을 맡았다. 의리 있고 호탕한 성격의 캐릭터로 투박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인다. 조폐국 직원 이주빈과 나누는 미묘한 로맨스는 드라마의 인기 요소로 꼽힌다. 수위 높은 베드신까지 펼쳐 ‘덴버 커플’의 팬덤도 가파르게 늘었다.

“스페인 원작에서는 더욱 적나라한 베드 신이 많아요. 그래서 리메이크 작품에 캐스팅됐을 때부터 숙명으로 받아 들였어요. 저나 (이)주빈이 모두 농도 짙



배우 김지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에서 긴 머리 스타일을 선보이며 “해외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말했다. 작은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넷플릭스

은 베드 신은 처음이라 틈나 나면 ‘우리 어떡하지?’하고 낮두리를 했어요.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숙제 같았죠. 하하! 부담을 함께 나누다보니 오히려 전

우애가 생겨서 무사히 촬영했습니다.” 부산 사투리 연기에도 공을 들였다. MBC ‘왔다! 장보리’ 등 그동안 주말드라마에 출연하며 굳어진 “‘실장님’ 이미

지를 깨부수기 위해서”이다. “부산 출신인 배우 배현경에게 강습을 부탁해서 세 달간 대본을 붙잡고 반복훈련을 했어요. 액션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별다른 인연이 없는 래퍼 사이먼 도미닉(쌈디)을 찾아가기도 했죠. 덕분에 제대로 ‘썬’ 부산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 “주말드라마 이미지 깨 버茬”

2002년 KBS 2TV ‘러빙유’로 데뷔해 ‘주말드라마 황태자’로 거듭났지만, “다양한 장르를 하고 싶다”는 갈증에 시달려왔다. ‘종이의 집’이 “앞으로 새 이미지를 보여줄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년 정도를 주말·일일드라마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연기해왔어요. 악역을 연기한 2020년 ‘악의 꽃’ 이후 2년 정도 쉬면서 새 캐릭터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종이의 집’이었죠. 그러다보니 제게는 드라마의 세계 흥행이 더욱 남다르게 다가와요. 마음을 다해 쏟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가슴 벅찰 만큼 뿌듯하고 감사해요.”

연말에 공개될 파트2에서는 “강도단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친다.

“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리메이크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상했던 바예요. 원작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교되는 건 당연하죠. 다만, 파트2까지 완주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아마 두 배 이상 재미있을 걸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OCN 스릴러 시리즈 ‘실종’ 왜?

올해까지 새 드라마 방영 안하기로
“OTT 상용화 여파 채널파워 사라져”

‘보이스’, ‘신의 퀴즈’, ‘경이로운 소문’ 등을 히트시키며 ‘장르물 명가’로 꼽힌 OCN이 당분간 새로운 장르 드라마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말과 내년 초 OCN에서 방영 예정인 ‘블라인드’와 ‘아일랜드’는 최근 tvN에서 방송 논의 중이다. ‘미씽’ 시즌2에 이어 지난해 채널 자체 최고시청률(11%·닐슨코리아)을 경신한 ‘경이로운 소문’ 시즌2도 tvN에서 방송할 가능성이 높다.

OCN은 영화 및 드라마를 소개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방송가 안팎에서는 ‘채널의 파워가 사라질 위기’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광숙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3일 “장르물 공급 채널의 역할을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대체한 지 오래”라며 “과거 스릴러 장르를 통해 ‘틈새 공략’으로 성공을 거둔 이력을 살려 새 환경에 맞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OCN과 비슷한 ‘전문 채널’들도 예능 콘텐츠 제작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드라마 및 스릴러 전문 채널 AXN은 최근 범죄 소재의 예능프로그램 ‘풀어파일라’를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와 함께 제작해 내놨다. 이에 대해 AXN 관계자는 “채널 개성은 살리되 콘텐츠 제작 및 공급까지 영역을 넓혀 OTT와 상생하려는 전략”이라며 ““프로파일러’ 등을 OTT에 모두 판매했고, 시청자 연령층도 20~30대로 낮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영화 ‘브로커’ 독일 뮌헨영화제 최고상 수상



영화 ‘브로커’

송강호 주연·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가 제39회 독일 뮌헨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3일(한국시간) 뮌헨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로커’가 영화제 최고상에 해당하는 아리 어워드(ARRI Award)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쟁 부문인 시네마 스타스 섹션에는 ‘브로커’와 샤를로트 반더미르하·펠릭스 반 그뢰닝엔 감독의 ‘여덟 개의 산’, 사에드 루스타이 감독의 ‘레일라의 형제들’ 등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을 포함해 모두 10편이 초청됐다.

선, 독립유공자 후손 보금자리 6호집 기부



선

가수 선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6호 집을 기부했다. 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선은 지난달 29일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에서 독립유공자 이소용 선생의 후손에게 새 보금자리를 기부하는 헌정식을 가졌다. 이소용 선생은 춘천 의병장으로 을미의병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선은 앞서 윤세아, 육상 국가대표 출신 장호준과 6호 지붕의 골조 작업과 하부 토대 작업 등에 참여했다. 이번 기부는 선이 2020년부터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기부 마라톤 ‘815런’을 통해 이뤄졌다. 선은 경상북도 청송군에 7호 집을 기부할 예정이다.

제이홉 ‘모어’ 84개국 아이튠즈 톱송 1위



제이홉

그림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솔로 주자로 나선 제이홉이 최근 선공개한 ‘모어’(MORE)로 84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3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1일 공개한 ‘모어’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84개국 아이튠즈 ‘톱 송’ 정상에 올랐다. 이 곡은 제이홉이 15일 발표 예정인 첫 번째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 수록곡으로 1일 선공개했다. 한편 중국이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콜라보레이션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가 영국 오픈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41위에 올랐다.

“나도 작가”…스타들 에세이 출간 러시

강민혁·정세운·박정민·안재현…
솔직한 이야기로 대중에 어필

‘스타 작가’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달라졌다. 인기에 힘입어 쉽게 책을 내놓는다는 일부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던 과거와 달리 에세이(산문집)를 통해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는 스타들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가 높아졌다. 올해 출간된 스타들의 에세이 대부분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것은 물론 과거 발간된 에세이까지 꾸준히 개정·보증판을 내며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최근 배우 최희서와 안재현이 각각 첫 에세이 ‘기적일지도 몰라’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선보였다. 두 책 모두 각

각 대형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명사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 차트 10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재현은 두 번에 걸쳐 200명의 독자와 만나는 출간 기념 사진회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이들뿐만 아니라 개그맨 김영철, 씨엔블루 강민혁, 가수 정세운 등이 에세이를 출간했다. 2016년 출간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으며 리커버판·개정정보판까지 나온 ‘살모 없는 인간’의 배우 박정민은 여러 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쓴 ‘요즘 사는 맛’과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를 선보여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안재현의 에세이를 낸 ‘출판사 헤다’의 홍보·마케팅 담당자는 3일 스포츠동아에 “스타들이 에세이를 통해 솔직하고 친근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됐다”라며 “독자들도 방송을 통해 보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스타의 새롭고 진솔한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는 게 판매부수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 작가들에 대한 호감도가 늘면서 출판사들도 ‘스타’ 작가들을 환영하고 있다. 출판사 헤다 관계자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은 고정적 팬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책들에 비해 홍보가 쉽다. 초기 책 판매에도 팬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설명했다.

다만 “작가로서의 글쓰기 능력이 부재한다면 높은 인지도와 스타성도 소용이 없다”라며 “모든 에세이의 선정 기준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공감 가능한 내용 감정과 경험의 진솔성에 있다. 팬덤에만 의존한 책은 장기적 판매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컴백한 ‘소녀시대’…“우리는 배우시대”

연기 겸업 멤버들 새 작품 잇달아
서현·윤아·수영·유리 드라마 캐스팅
티파니도 하반기엔 연기로 신고식

케이(K)팝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가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아 완전체 그룹 활동은 물론 멤버별 솔로 활동까지 다채롭게 나선다. 그동안 멤버들이 그룹 공백기 동안 집중했던 배우 활동은 올해 더욱 두드러져 여름부터 차례로 새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

소녀시대로 나서는 첫 완전체 활동은 5일부터 방송하는 JTBC 새 예능프로그램 ‘소시탐탐’이다. 멤버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예능 콘텐츠에 도전해본다는 콘셉트로, 이를 시작으로 활동 시동을 건다.

이후 8월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새 앨범을 내놓는다. 새 앨범은 2017년 선보인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 이후 5년 만이다.

음악 활동과 동시에 연기 활동도 바쁘게 이어간다. 최근 2년 만에 연기에 복귀한 서현은 KBS 2TV 수목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에서 손이 닿는 사람의 미래를 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여자 역을 맡고 나인우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윤아는 29일 첫 방송하는 MBC 새 드라마 ‘빅마우스’로 JTBC ‘허쉬’ 이후 2년 만에 드라마로 시청자를 만난다. 극중 ‘천재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쓴 변호사 남편 이종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활력 강한 간호사를 연기한다. 가을에는 2PM의 멤버 겸 배우

이준호와 드라마 ‘킹더랜드’ 촬영을 시작하고, 영화 ‘2시의 데이트’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수영도 8월 KBS 새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호스피스 병원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에서 지창욱, 성동일과 호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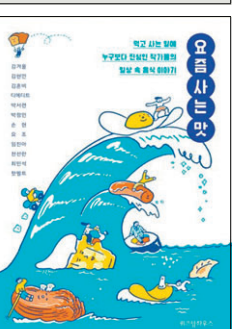
유리는 하반기 방송 예정인 ENA드라마 ‘굿잡’ 출연을 확정했다. 지난해 MBN ‘보쌈-운명을 훔치다’를 통해 호흡을 맞췄던 정일우와 다시 한번 재회해 눈길을 끈다. 초시력 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맡아 정일우와 공조 수사 로맨스를 펼친다.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한 티파니도 하반기 방송하는 송중기 주연의 JTBC ‘재벌집 막내아들’로 정극 연기 데뷔전을 치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본인의 특징을 살려 극중 교포 캐릭터를 연기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배우 최희서, 안재현, 박정민, 개그맨 김영철(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이 에세이를 내놓고 대중과 친숙하게 소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문북스·헤다·위즈덤하우스·김영사



걸그룹 소녀시대가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예능프로그램 ‘소시탐탐’을 5일부터 선보인다. 사진제공 | JTBC